

기후변화 '불안' 전국서 가장 심각

2018년 기점 전국평균 역전... 2022년 51.9% 응답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 높을수록 불안인식 더 커져 자연보호 의식 높지만 대중교통 이용 등은 낮은 편

제주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2018년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영희)은 제주도민의 기후·환경 인식과 실천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제주도민의 기후변화 불안 경험과 환경 행동 추이(2012~2022)' Jewfri Brief(연구책임자 고지영 선임연구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기후·환경에 대한 제주도민의 생각과 실천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원자료(2012~2022년)를 활용해 20세 이상 인구의 기후변화 불안, 환경보호 비용 부담금 지불 인식,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인구 사회적 특성별로 살펴

보고 전국 추이와 비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기후변화 불안 인식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나 2018년 역전했다. 2022년에는 20세 이상 제주도민의 51.9%(전국 46.3%)가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평균 인식은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불안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보호 비용 부담금 지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추세다. 2022년 20세 이상 제주도민의 55.8%(전국 50.4%)가 찬성하며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를 차지했다. 40대와 60세 이상,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불안감이 높을수록 찬성 입장을 보였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7개 분야

의 노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민은 일회용품 미사용과 친환경 제품 구입·사용 등을 꼽았다. 자연보호 활동 분야에서는 전국평균보다 의식이 높은 반면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서는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7분야 합산으로 보는 2022년 제주도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이었다. 여성일수록, 40대와 60세 이상일수록 높고, 교육 수준이나 기후변화 불안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형 정책 시사점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합리적 경각심 제고 ▷환경 행동 실천을 위한 정책·교육 강화 ▷공공기관 및 사회적 리더십의 환경 행동 실천 수단 강화 ▷기후·환경 분야의 여성정책 발굴 및 정책 참여 확대 ▷제주지역 기후·환경 이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등을 제시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도민 지구 23바퀴 걸어 나눔 실천했다

'10억 걸음 챌린지' 8개 기관 등 3800여 명 참가 목표 30% 초과 13억 걸음 달성... 2억원 기부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한 '도민 10억 걸음 목표 걷기 기부 캠페인'이 당초 목표를 30% 초과한 13억 걸음을 달성했다. 13억 걸음은 중학생 기준 한걸음당 70cm로 잡아 환산하면 지구 22.6바퀴를 도는 거리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이뤄진 이번 캠페인에는 도민 3800여 명이 참여했다. 8개 참여기관과 기업은 캠페인 목표 달성에 따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 2억원을 이달 중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개발공사, 네오플, 카카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동화마을, NH농협 제주본부, 제주은행 등 도내 8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기부금은 도내 소아암·백혈병 환자,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과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제주도는 2일 '1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걷기 기부 캠페인 참여 기관과 기업에게 감사패를 전

달했다. 행사에서는 걷기 좋은 제주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도민 10억보 목표 달성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걷기 운동을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들의 사회공헌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걷기는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인 만큼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2015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장. 한라일보DB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보상 '순풍'

JDC, 올해 목표 70% 상회... 대상 면적 64% 확보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보상률이 올해 목표치인 70%를 넘어선 사업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JDC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토지주 480명 가운데 295명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JDC는 추가보상금 755억원 중 약 532억원(70.5%)을 집행해 42

만8177㎡(전체 추가보상 대상면적의 63.7%)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도 지난해 말과 건위 원고수 기준 약 62%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 등 화해 노력을 지속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JDC는 지난 8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도출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초까지 용역을 시행 중이다. 특히 기존 유역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건축물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2일 오순문 시장이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감귤원을 찾아 일손을 돕고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귀포시 제공

"계절근로 확대 감귤 수확 인력난 해소"

오순문 서귀포시장, 남원읍 감귤 수확 현장 찾아 베트남 계절근로자 등 만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서귀포시는 감귤 수확철에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2일 남원읍 하례리의 한 감귤원,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제주유미농협 현재근 조합장과 함께 이곳을 찾아 노지 감귤 수확을 돕고 베트남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베트남 노동자들은 제주에서 언어 문제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도 숙소 제공, 급여 등 근무 여건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인력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빠르게 농작업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감귤 수확기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등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참여 농가가 3개소로 늘어난다. 기존 제주유미·대정농협과 함께 서귀포농협이 추가되면서다. 오순문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확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내년 확대 예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감귤 수확 인력난이 해소되도록 힘쓰겠다"며 "서귀포 감귤이 제값을 받도록 상품의 감귤 유통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